

# 국내 농촌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 -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Trend on the Issues of Rural Migrant's Social Integration

- Focused on Bibliometric Method -

김 두 원\*  
Kim, Du-Won

남 진 보\*\*  
Nam, Jinbo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driver change of recent research in relation to rural and migrant and draw overarching issues as well as to provide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migrants' social integration in Korean rural areas. As for the scope and method of the study, data through quantitative bibliographic analysis (quantitative data) and research keywords by period were derived. To address the aim this study employed bibliometric analysis utilising 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 by VOSviewer and topic modeling analysis by Netminer. The findings were revealed that firstly mental health issues in abroad research and employment and discrimination in domestic research both derived from migrant mobility constituted staple key issues, secondly internal and external research differed two issues in health and violence where Korea has overlooked the issues seriousl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implications which are about first, health and violence-related sections for migrants should be specified into domestic law, second domestic-focused MIPEX index should be developed in which the two issues are over-weighted and last such newly emerging approach 'inclusive form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mechanisms should be widely spread. Concluding remark is that delivering the implications can be foster to migrants' integration in rural area underlining that this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migrants' quality of life.

주요어 : 네트워크 맵핑 인터페이스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 포용적 사회심리구조형성, 농촌, 이주민

Keywords : 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 Topic Modeling Analysis, Inclusive Formation of Social Psychological Mechanisms, Rural, Immigran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농촌과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계량서지학적 연구로서 농촌, 이주민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분석 및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사회통합 및 삶의 질 관련 쟁점을 알아보고 국내 농촌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계화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출생 국가를 떠나 타국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2020년에 약 2억 8,1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6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UN DESA, 2020)<sup>1)</sup>. 이러한 변화는 이질적인 문화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서의 도전에 직면하기도 한다(강휘원, 2006)<sup>2)</sup>. 국내의 경우 외국인 주민수는 2021년 기준 약 이백만명(행정안전부, 2021)<sup>3)</sup>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화 문제 및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김배성, 최세현 2007)<sup>4)</sup>. 이와 같은 변화로 국내가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장신재, 2020)<sup>5)</sup>.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20세기 후반 이주민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로 한국 정부는 이주자격 부여에만 급급하여 이주민의 건강한 삶은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언급하였다(이은채, 2022)<sup>6)</sup>. 이에 따라 이주민과 관련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며, 대안으로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김기태 외 2020<sup>7)</sup>; 전경옥 2007<sup>8)</sup>; 최연선, 2009)<sup>9)</sup>. 이민자의 사회통합 개념은 제2차

3) 행정안전부, 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3

4) 김배성, 최세현, 농촌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과 성격-농촌지역 인구구조 및 외국인 인구 변화추이 전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3), 2007. pp.291-307.

5)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2018년 일민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2020. pp.75-92.

6)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사회 69, 2022. pp.127-161.

7) 김기태 외,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주노동자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8)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 46(1),

\*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강사, 조경학석사

\*\* 국립목포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 환경경영학 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jinvo.nam@gmail.com)

1) UN DESA, https://www.un.org/en/desa

2) 강휘원, 한국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2006. pp.5-34.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국가 간 통합을 국제 관계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개발되었다(Deutsch 1978)<sup>10)</sup>. 이 모델은 이민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사회에 편입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민자 사회통합은 이주민의 일방적인 이주국으로의 동화 및 적응이 아닌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알아가고, 인정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동재, 2019)<sup>11)</sup>. 사회통합은 이민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편입(Social Incorpor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용어로 사용한다. 즉, 사회적 응집은 사회적 배제를 지양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참여를 독려하며, 사회적 포용은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고용의 참여와 자원, 권리, 재화 및 서비스 제공으로 배제의 위험을 방지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하여 응집을 성취한다. 사회통합은 다양한 문화, 언어, 민족 등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공존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접근하고 있으며 노대명(2019)<sup>12)</sup>에 의하면 사회통합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동의 비전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지칭하며 ‘동등한 기회’, ‘물질 불평등 최소화’로 압축된다. 강신욱(2010)<sup>13)</sup>은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미숙 외(2012)<sup>14)</sup>는 사회통합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및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각국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참여, 공존, 쌍방향 의사소통과 인정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노력을 반영하였고 실제 정책에서 실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2000년대 초반 이민자 통합(Migration Integration) 지표 작업이 시작되었다. 유럽 연합의 이민자 통합 정책을 위한 공통 기본 원칙 제10조에 따르면, 통합은 “회원국의 모든 이민자와 거주자에 의한 역동적이고 양방향의 상호 수용 과정”으로 정의된다(유럽연합 이사회, 2004)<sup>15)</sup>. 이러한 통합 과정은 다양성과 규모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필요하다.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MIPEX)도 이러한 시도 중에 하나로써 MIPEX는 2004년에 각국 이민정책의 이주자 통

합 기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주민의 통합정책 자료를 수집, 평가, 비교 분석하는 지표로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회 통합 정책지표 중 하나이다. MIPEX은 국제사회의 통합 개념, 통합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5개 대륙 56개국에 총 5차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8개 정책 영역에 대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김현숙, 2021)<sup>16)</sup>. 한편 MIPEX 지수에 따르면 통합의 정도를 포괄적 통합(Comprehensive Integration), 서류상의 평등(Equality on paper), 임시적 통합(Temporary integration), 통합 없는 이주(Immigration without Integration)로 나눈다. 2020년 5차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포괄적인 통합-절반 정도 호의적 그룹으로 56개국 중 평균 점수가 56점으로 18위를 차지하고 있다(MIPEX 포털)<sup>17)</sup>.

아래의 <Table 1>을 보면 8개 정책 영역의 전체 평균과 대한민국의 평균 8개 정책 영역의 점수를 비교한 것으로서 MIPEX 56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교육(72), 정치적 참여(65), 노동시장 이동성(65)에서는 MIPEX 56의 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반 차별(51), 건강(40), 가족 재결합(54) 순이었다.

Table 1. Korea VS MIPEX 56 (2019')

Policies	KOREA	MIPEX 56
Labour Market Mobility	65	49
Family Reunion	54	58
Education	72	40
Health	40	49
Political Participation	65	25
Permanent Residence	60	58
Access to Nationality	44	44
Anti-Discrimination	51	70

source: Re-analised table derived from original source 'MIPEX 2020'

MIPEX 56에서는 반차별(70), 가족 재결합(58), 영구거주(58) 순으로 반차별이 가장 잘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고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는 정치참여(25), 교육(40)이었다. 교육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이주민 학생들이 언어문제, 적절한 학교, 수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며 일반 교육 시스템에 맡겨져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악화하는 상황이다.

정치 참여 역시 대부분 이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개선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외국인에 제한된 지역 선거권, 제대로 지원 안 되는 이주민 주도 조직이나 협의체를 통한 이주민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이다(Solano & Huddleston, 2020)<sup>18)</sup>.

이주민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이유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깊기 때문이다(Foroughi, Misajon and Cummins, 2012)<sup>19)</sup>:

16) 김현숙, MIPEX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MIPEX 2020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4(1), 2021. pp.37-59.

17) MIPEX 포털, www.mipex.eu/key-findings

18) Solano, G and T. Huddleston,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20, Barcelona/ Brussel: CIDOB and MPG, 2020.

2007. pp.7-42.

9) 최연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6(3), 2009. pp.161-179.

10) Deutsch, Karl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11) 정동재,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 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한국행정연구원, 2019. pp.57.

12) 노대명 외 4인,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13) 강신욱 외 3인,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0.

14) 김미숙 외 7인, 사회통합 증진기 전략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사회통합위원회. 2012.

15) 유럽연합 이사회, https://ec.europa.eu

Laurentsyeva and Venturini, 2017)<sup>20</sup>. Sun, Lyu, Dai Z(2019)<sup>21</sup>의 연구에서도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삶의 질 그리고 웰빙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이주민은 사회적 위협과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사회통합이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할수 있다고 언급한다(Knight & Gunatilaka, 2010)<sup>22</sup>: Zimmerman, Kiss, Hossain, 2011)<sup>23</sup>). 사회통합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연관하는 사회적 쟁점과 더불어 쟁점과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중점을 가진다(Brydsten, Rostila and Dunlavy, 2019)<sup>24</sup>. Nauck(2001)<sup>25</sup>은 사회통합의 과정으로서 쟁점에 대한 이해를, Penninx(2019)<sup>26</sup>는 사회통합을 위한 문제와 해결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건강과 관련한 쟁점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ecerof, Stafström, Westerling et al., 2015)<sup>27</sup>: Johnson, Rostila, Svensson et al., 2019)<sup>28</sup>.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이주민 증가와 부정적 사회현상은 이러한 맥락은 더욱이 중요시 될 것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이주민 증가와 이러한 사회통합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도 근본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농촌지역에서 이주민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농촌과 이주민의 사회적 문제 대두는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있으나, 학문적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농촌과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계량서지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불러온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 농촌, 이주민 관련 네트워크 키워드 분석 및 국내외의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관련 쟁점을 알아보고 둘째로 국내외와 해외의 농촌, 이주민 관련 비교분석, 셋째로 이와 관련하여 국내 농촌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 2. 국내·외 계량서지학적 분석 결과

### 2.1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평가, 델파이(Delphi) 기법 등을 포함하는 정성적 방법과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저감 그리고 객관화된 평가를 위한 정량적 방법인 계량서지학적방법론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토픽모델링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이유빈 외, 2020)<sup>29</sup>

본 연구는 Network Mapping Interface 분석과 LDA 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한 국내·외 데이터 비교분석 및 해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로 진행되며 연구의 방법은 아래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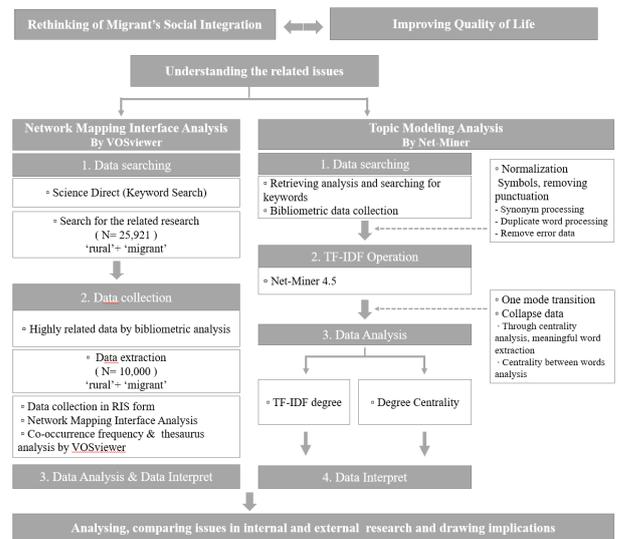


Fig. 1. Research procedure

- 19) Foroughi, E., R. Misajon. and R.A. Cummins,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t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on Quality of Life. *Behaviour Change*, 18(3), 2012. pp.156-167.
- 20) Laurentsyeva, N and A. Venturini,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Role of Policy – A Literature Review. *Intereconomics* 52(5), 2017. pp.285-292.
- 21) Sun J., Lyu S., Dai Z. The impa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style on health status of residents: Evidence from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data. *Int. J. Health Plan. Manag.*, 34, 2019. pp.1097-1108.
- 22) Knight J., Gunatilaka R. Great Expectations?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ural-Urban Migrants in China. *World Dev.* 38, 2010. pp.113-124.
- 23) Zimmerman C., Kiss L., Hossain M. Migration and Health: A Framework for 21st Century Policy-Making. *PLoS Med.* 8(5), 2011. e1001034.
- 24) Brydsten, A., M. Rostila. and A. Dunlavy,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 - a decomposition approach to mental health inequalities between the foreign-born and native-bor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8, 2019. pp.48.
- 25) Nauck B., Intercultural Contact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 2001. pp.159-173.
- 26) Penninx R., Problems of and solutions for the study of immigrant integration,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7(13), 2019. pp.1-11.
- 27) Lecerof, S.S., M. Stafström, R. Westerling. et al., Östergren. Does social capital protect mental health among migrants in Sweden?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31(3), 2015. pp.644-52.
- 28) Johnson, C.M., M. Rostila., A.C. Svensson.et al.,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xplaining mental health inequalities between immigrants and Swedish-born: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7(1), 2017. pp.171.

#### (1) 해외 연구 Network Mapping Interface 분석

농촌과 이주민에 관한 해외 연구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Network Mapping Interface 분석을 바탕으로한다. 이 분석을 위해 키워드 및 저자에 기반한 정량적, 연관성 및 시각적 결과 도출을 위해 VOSview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rural(농촌)' 과 'migrant(이주민)'의 주요어와 관련한 최근 약 20년 동안의 해외 연구를 검색 및 추출하였다. Network Mapping Interface 분석을 위한 키워드는 Science Direct에서 검색한 후 추출하였다. 추출 조건은 영문으로 된 연구논문이며, 동료 심사를 마친 신뢰도가 높은 연구로 한정하였다. 추출된 연구 자료는 VOSviewer 분석을 위해 RIS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수집하였다. 검색을 통해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총 25,921개 연구를 추출하였다. 그 중, 연관성이 높은 상위 1,000개의 연구를 재추출하였다. VOSviewer에서 추출된 RIS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계량서지학적(bibliographic) 자료 맵핑을 설정하고, 동시발생(co-occurrence)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VOSviewer 유사어(thesaurus) 병합 및 관련성이 적은 키워드는 삭제하여 재분석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을

- 29) 이유빈 외 5인, 계량적 모델을 통한 지리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토픽 분석, *대한 지리학회지*, 55(6), 2020. pp 589-599.

위해 Overlay Visualization으로 네트워크 시각화하였다. Network Mapping Interface 분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완전네트워크로, 완전네트워크와 연관성 높은 경로를 가지는 에고네트워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에고네트워크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관련하는 연관어를 분석하였다. 완전네트워크와 에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클러스터와 연결어, 연결강도(Total link strength)를 도출하였다.

(2) 국내 연구 Topic Modeling 분석

본 연구에서는 KCI 수록 논문을 대상으로 Net-Miner4.5.0의 Biblio Data Collector 기능을 사용하여 과거 20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논문을 선별하였다. 메타데이터 수집을 위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출간된 논문 중 KCI검색(키워드 ‘rural’, ‘migrant’)을 통해 총 101편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해당 메타데이터의 제목, 초록의 내용에서 분석에 필요한 키워드에 집중하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Abstract 내용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Abstract와 같은 문장형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Karl, Wisnowski & Rushing, 2015<sup>30</sup>; Lucas et al., 2015<sup>31</sup>).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한 전처리로 정규화 작업을 수행하였고 TF-IDF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단어의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TF-IDF는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용하는 가중치로 여러 문서군에서 어떤 단어의 특정 문서 내에서 중요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유의미한 단어를 추출하였다.

2.2 해외 연구의 Longitudinal 분석

‘rural(농촌)’과 ‘migrant(이주민)’과 관련하는 연구는 408개의 관련어, 39개의 클러스터, 854개의 연결수, 1027의 연결 강도를 나타냈다<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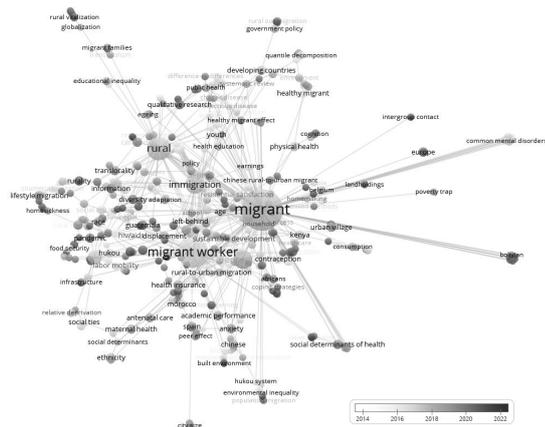


Fig. 2. Longitudinal overlay visualization by 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

30) Karl, A., J. Wisnowski and W.H. Rushing, “A Practical Guide to Text Mining with Topic Extractio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7(5), 2015. pp. 326-340.  
 31) Lucas, C, et al.,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for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Analysis, 23(2), 2015. pp. 254-277.

2014년 전후 ‘earning(소득)’, ‘employment(고용)’과 같은 연구가, 2016년 전후는 연장선에서 ‘labor shortage(노동력 부족)’, ‘labor mobility(노동력 이동)’등에 관한 연구자 자주 등장한다. 2018년 전후로는 ‘mental disorder(정신 장애)’, ‘environmental inequality(환경 불평등)’, ‘relative deprivation(상대적 박탈)’ 등 농촌 이주민에 대한 정신 장애, 환경적 불평등, 상대적 박탈 같은 부정적 쟁점들이 자주 연구되었다. 2020년 전후로는 ‘rural vitalization(농촌 활성화)’, ‘rurality(시골풍)’, ‘livelihood(생계)’, ‘well-being(웰빙)’, ‘rural development(농촌 발달)’, ‘rural change(농촌 변화)’ 등 농촌의 정체성과, 활성화, 변화, 웰빙과 같은 연구가 활발하였다. 즉, 농촌과 이주민의 연관성 맥락에서 고용, 소득, 노동에 의한 불가피한 농촌에서의 이주민의 이동은 정신적, 사회적 문제의 쟁점을 불러왔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 개선을 통한 농촌의 활성화와 변화에 대한 쟁점 변화 과정으로 분석된다.

2.3 해외 연구에서 일반적/부정적 쟁점 분석

‘rural(농촌)’과 ‘migrant(이주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일반적 및 부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Table 2>.

Table 2. General and negative issues between ‘rural’ and ‘migrant’

General issues	occurrences	total link strength	Negative issues	occurrences	total link strength
migrant worker	58	60	depression	18	21
immigration	20	37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4	11
diversity	4	11	race	4	10
sustainable development	4	8	anxiety	4	8
residential satisfaction	4	7	inequality	4	8
rural-to-urban migration	4	7	displacement	4	6
social ties	4	7	forced migration	4	6
rural migration	4	6	maternal health	4	6
well-being	4	6	ethnic minorities	3	10
labor mobility	4	5	residential segregation	3	7

일반적 쟁점으로 ‘migrant worker’와 ‘immigration’이 가장 높은 빈도수와 연결성을 보여 중요한 완전 네트워크로 도출되었다. 이외 ‘diversity’, ‘sustainable develop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rural-to-urban migration’, ‘social ties’, ‘rural migration’, ‘well-being’, ‘labor mobility’와 같은 쟁점이 일반적으로 농촌과 이주민의 연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농촌과 이주민 연결 맥락에서 부정적 쟁점이다. ‘depression(우울)’이 농촌에서 이주민과 관련하는 완전 네트워크로 도출되었다. 이 밖에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race’, ‘anxiety’, ‘inequality’,

‘displacement’, ‘forced migration’, ‘maternal health’, ‘ethnic minorities’, ‘residential segregation’이 부정적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적 쟁점은 에고 네트워크로 독립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추가 네트워크 연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Table 3. Further network analysis of negative issues on ‘rural’ and ‘migrant’

Main ego-clusters	Cluster Item
	Linked issues
	‘Depression’ (L:18 : TLS: 21) cognition, childhood development, perceived discrimination, mental health, rural-urban migrant, subject well-being
	‘Race’ (L:10 : TLS: 10) diversity, landscape, migrant communities, migrant labor, mobility, place, place-making, cosmopolitanism
	‘Anxiety’ (L:7 : TLS: 8) childhood trauma, inequality, migrants and locals, psychological resilience, travel behavior
	‘Displacement’(L:6 : TLS: 6) marriage migration, migrant labor, risk factor, rural gentrification, South Korea, women
	‘Ethnic minorities’ (L:5 : TLS:10) health policy, job quality, mixed migrati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working conditions, policy scripts

주요 부정적 쟁점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 ‘Depression’은 18개의 연결 수를 보여주며, 다양한 원인이 기인하였다. 특히, 인식되는 차별, 부정적 인지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쟁점으로 제공되었다. 우울과 더불어 ‘Anxiety(불안)’이 또 다른 정신적 문제로 도출되었다. 이는 트라우마, 이주민과 지역민의 불평등, 심리적 탄력성 등으로 인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Displacement(타의에 이동)’은 결혼, 노동, 농촌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쟁점에 의해 원치 않은 이동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특히, South Korea가 주요 연결어로 분석되며, 국내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밖에 인종과 소수 민족 맥락에서의 부정적 쟁점이 도출되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해결을 위한 쟁점 또한 도출되었다. 특히, 소수 이민자에 대한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 모성보건과 관련한 정책방안 제시에 대한 연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 3. 농촌과 이주민에 대한 국내 연구 계량서지학적 분석

#### 3.1 국내 연구의 연결중심성 분석

국내의 최근 20년 동안의 KCI 등재 연구 논문에 대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하여 이주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도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Migrant’를 중심으로 ‘Rural’, ‘Social’, ‘Worker’, ‘Family’, ‘Women’ 순으로 연결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주자들은 주로 여성으로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이거나 가족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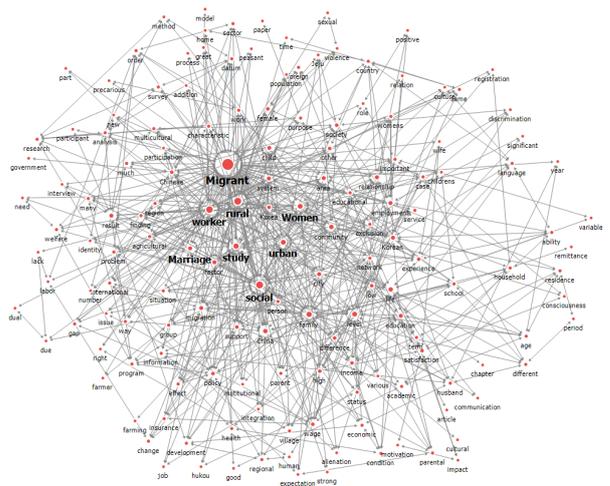


Fig. 3. Degree centrality analysis

#### 3.2 국내 연구에서의 일반적/ 부정적 쟁점 분석

‘rural(농촌)’과 ‘migrant(이주민)’으로 KCI 수록 논문 대상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일반적 및 부정적 쟁점의 빈도와 연결성 정도를 도출하였다<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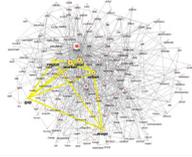
Table 4. General and negative issues between ‘rural’ and ‘migrant’ in KCI research

General issues	Frequency	In-Degree	Negative issues	Frequency	In-Degree
Worker	177	63	Problem	37	13
Social	117	66	Difference	22	12
Marriage	67	20	Peasant	20	7
Family	66	37	Gap	20	3
Community	59	32	Exclusion	17	8
Life	58	29	Discrimination	16	5
Employment	36	21	Violence	13	6
Satisfaction	27	15	Sexual	11	3
Female	24	11	Lack	11	5
Difference	22	12	Precarious	10	3

일반적 쟁점으로 ‘Worker’와 ‘Social’이 빈도수와 연결정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외 ‘Marriage’, ‘Family’, ‘Community’,

‘Life’, ‘Employment’, ‘Satisfaction’, ‘Female’, ‘Difference’ 등도 농촌과 이주자의 연관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쟁점으로는 ‘Problem’, ‘Difference’, ‘Peasant’, ‘Gap’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Discrimination’, ‘Violence’ 등이 해외와는 차별적으로 도출되었다. 이밖에 ‘Alienation’, ‘Regression’, ‘Exploitation’, ‘Divorce’, ‘Vulnerability’ 등의 부정적인 쟁점으로 일부 도출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5>.

Table 5. Further network analysis of negative issues on ‘rural’ and ‘migrant’ in KCI articles

Main ego-clusters	Cluster Item
	Linked issues
	‘Problem’ (L:8 : ID: 6.0) Migrant, Worker, Marriage, China, Alienation, Way, Order, Chinese
	‘Gap’ (L:5 : ID: 2.0) Urban, Rural, Worker, Wage, Region
	‘Exclusion’ (L:8 : ID: 6.0) Discrimination, Womens, Other, Migrant, Rural, Urban, Social, Difference
	‘Violence’(L:4 : ID: 6.0) Sexual, Female, Migrant, Group
	‘Discrimination’ (L:4 : ID: 6.0) Society, Exclusion, Experience, Urban

주요 부정적 쟁점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Problem’과 ‘Exclusion’은 8개의 연결 수를 보여주며, 다양한 원인이 기인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Violence’가 이주여성 그룹에서 성적인 폭력과 관련하여 나타났으며 ‘Alienation’과 ‘Exclusion’ 등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들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Community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이 크게 7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졌으며 G1은 노동자의 삶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이루어진 그룹, G2는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과 가족, 한국사람 및 사회와 관계하여 연결된 그룹 G3는 이주민 연구와 연결된 그룹으로 특성 분석이나 방법론 그리고 중국 이주자, 인

터뷰 관련 G4는 이주여성 농민 그룹과 관련된 폭력, 성적인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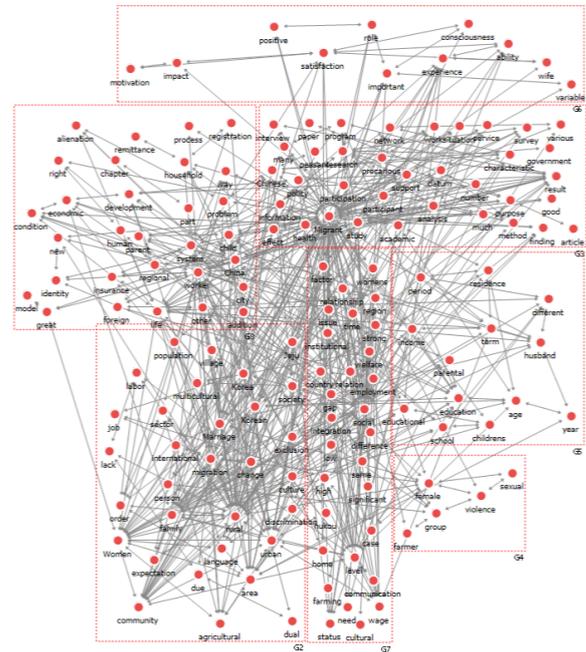


Fig. 4. Community analysis

그리고 G5는 남편의 부인 나라 언어 소통, 자녀들의 교육, 거주기간 및 수입과 관련, G6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경험, 능력, 다양성 동기, 긍정적인 역할의 중요성, G7은 사회적 내용과 관련된 그룹으로 다른 그룹들과의 연계성이 가장 많이 되어 있고 여성의 고용, 복지, 소통, 차이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텍스트 내의 단어 분석을 통해서 문서의 주제를 알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사용하는 잠재디리클레할당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방식으로 분석하였다. LDA 분석 결과는 <Table 6>와 같으며 각 토픽은 대상에 따라서 여성 및 결혼이주 여성 혹은 노동자나 중국인 노동자, 이주민 커뮤니티로 구분되어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그래서 토픽 1은 농촌지역 여성 대상의 성적·폭력 문제로 토픽 3은 결혼 이주여성의 고용, 취업으로 토픽9는 다른 이주민 커뮤니티와 사회에서의 문제로 표기하였다.

Table 6. LDA Topic modeling analysis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1	Migrant	Rural	Female	Violence	Sexual
2	Worker	China	City	System	Labor
3	Women	Marriage	Korean	Study	Employment
4	Migrant	Chinese	Study	Peasant	Work
5	Life	Result	Relationship	Factor	Satisfaction
6	Urban	Rural	Policy	Development	Wage

Topic	1st keyword	2nd keyword	3rd keyword	4th keyword	5th keyword
7	Social	Group	Level	Difference	Exclusion
8	Family	Child	Education	Support	School
9	Community	Society	Migration	Problem	Other
10	Area	Study	Research	Experience	Korea

토픽 2는 중국 노동자의 도시에서의 노동 체계와 토픽 4는 중국인 이주자의 소착, 일 관련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공간에 따른 토픽 6은 도시와 농촌의 개발과 임금 정책과 토픽 10의 대한민국의 지역에서 실증 경험 연구로 표기하였다. 또한 삶의 질과 관련하여 토픽 5는 삶에서의 관계를 통한 만족도 결과 및 요소, 토픽 7은 사회적 집단의 수준 차이에 의한 배제 그리고 토픽 8은 가족이나 어린이의 학교를 통한 교육지원으로 표기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농촌지역과 이주민 관련 이슈는 첫째, 이주민 대상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 둘째, 이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에 따른 정책과 실증 연구, 셋째로 이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만족도 및 배제,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4. 농촌지역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고찰 및 시사점

##### 4.1 국내·외 농촌지역 이주민과의 사회통합 쟁점에서의 비교 고찰

국내·외 농촌지역에서 이주민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사회통합을 위한 일반적 그리고 부정적 쟁점을 불러왔다. 이에 국내·외 연구의 정량적 동향과 비교적 쟁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1) 국내·외 연구의 정량적 동향

국내·외에서 농촌과 이주민에 연관된 연구의 정량적 동향은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보여준다. 2001년 이후 국내에서는 총 101편의 연구가, 해외에서는 25,921편의 연구가 도출되었다. 해외 연구의 정량적 많음은 당연하나, <Fig. 5>에서 보여준 추세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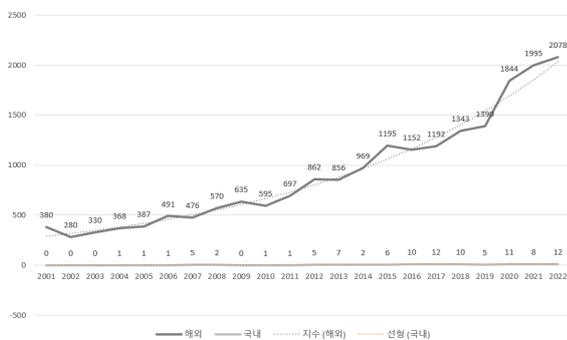


Fig. 5. Quantitative trend of the 'rural' and 'migrant' - related external and internal research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04년 관련 연구가 발견되며, 이후 정량적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상승 추세라 하기에는 미비하다. 국내에서 'rural'과 'migrant'의 연구가 각각 2,987편, 834편인 것에 비해 'rural + migrant'의 연구는 총 101편으로 농촌에서의 이주민 연구의 관심과 적극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국내·외 연구의 비교적 쟁점

국내·외 관련 연구의 쟁점을 비교하자면 노동, 고용, 차별, 가족과 결혼 등 사회적 쟁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촌지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해외와 비교되는 쟁점은 건강과 폭력이다. 첫째, 건강의 경우 해외 연구에서는 우울, 불안,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민의 우울에 대한 연구 캐나다(Ruth, 2017)<sup>32</sup>, 호주(Straiton et al., 2014)<sup>33</sup>, 미국(Szaflarski et al., 2016)<sup>34</sup>, 유럽의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Börsch-Supan & Jürges, 2005)<sup>35</sup>, 영국(Pollard and Howard, 2021)<sup>36</sup> 등에서, 농촌 이주민의 불안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더욱이, 이민자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도 해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로, 영국은 법적으로도 「Mental Health Act Section 117」에 준하여 이주민들의 정신적 정착을 위해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에서는 'Mental health: migrant health guide'를 매년 업데이트 하며, 이주민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포함하는 정신 스트레스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며, 지원 및 건강 서비스 수혜 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 5. 19.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 사항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히, MIPEX의 2019년 보고서에서 건강과 관련 지표가 우리나라의 경우, 총 53개국 중 34위로 중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 보다 낮은 부진한 지표를 나타낸다. 더하여, 국내의 경우, 농촌지역에

32) Ruth, D. Immigration and Depression in Canada: Is there really a Healthy Immigrant Effect? What is the Pattern of Depression by Time since Immigration?. University of Calgary, Calgary, Canada. 2017.

33) Straiton, M., Grant, J. F., Winefield, H. R., & Taylor, A. Mental health in immigrant men and women in Australia: the North West Adelaide Health Study. BMC Public Health, 14, 2014. pp.1111.

34) Szaflarski, M., Cubbins, L. A., Bauldry, S., Meganathan, K., Klepinger, D. H., & Somoza, E.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Dysthymia at the Intersection of Nativity and 90 Racial-Ethnic Origin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8(4), 2016. pp.749-763.

35) Börsch-Supan, A., & Jürges, H.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 Methodology. Mannheim: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eing (MEA). 2005. Retrieved from <http://www.share-project.org/>

36) Pollard, T & Howard, N, Mental healthcare for asylum-seekers and refugees residing in the United Kingdom: a scoping review of policies, barriers, and enab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15, 2021. pp.1-15.

서 의료서비스의 장벽이 높은 것(안석, 이유정, 장경희, 2019)<sup>37)</sup>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이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에서 부정적 쟁점으로 도출된 폭력이다. 1993년 UN에서는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발표하며, 이주민 특히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에 일찍이 노력해왔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폭력과 관련 학문적 그리고 일반적 사회적 쟁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폭력이라는 쟁점이 해외와 비교되는 부정적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뉴스나 기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국내 뉴스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서 가정폭력 경험은 19.7%이었으며, 폭력의 유형은 물건 던짐, 욕, 때림, 비정상 성관계’ 등임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은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더불어 양경은과 박송이(2021)<sup>38)</sup>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적응 및 차별 경험에서 기인하는 상징적 폭력의 심각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심각함에도 해결책 제시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해 이주민에 대한 폭력에 대한 법률적 및 정책적 대처는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으며, 통역 서비스를 갖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국내보다 심각성이 낮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활발하다. 예로, UN(2003)<sup>39)</sup>에서의 이주여성 노동자를 위한 폭력에 대한 대처 가이드, WHO EU에서의 ‘Preventing and address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migrant and ethnic minority women: the role of the health sector’ 보고서는 이주민과 소수인종과 더불어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정책과 시스템 작동기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하여, Garcia-Moreno et al.(2006)는 아시아에서 배우자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비율이 16.30%로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한 만큼, 국내 이주민 대상 폭력에 대한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위의 두 가지 쟁점은 기존 연구(김중관, 2014)<sup>40)</sup>에서 다문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해 언급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4.2 국내 농촌지역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해외와 국내의 농촌과 이주민에 관한 연구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앙 정책에서 다문화지원법에 이주민과 폭력에 관한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일부 조항의 반대로 폐기가 되고 있으나, 이주민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더하여,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국내형 MIPEX 지수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농촌지역 이주민 삶에서 부정적으로 도출된, 건강과 폭력에 대한 항목 추가와 지수산정에 가중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수 산정은 정기적으로 각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광역지자체에서 1차 취합 후, 중앙정부에서 통합 산정하여 이주민과 관련하는 의사결정 및 예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이주민의 사회심리 기제형성에 있어 포용의 쟁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농촌과 이주민의 부정적 쟁점은 차별,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쟁점 해결을 위해 장기간 법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만큼, 커뮤니티, 조기 청소년 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의 이행은 국내 및 농촌지역에서 필수적이며,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 5. 결론

세계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국가 간 이동 또한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는 증가되었고, 특히 원주민과의 분쟁은 국내에서 쟁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주민의 국내 유입은 사회, 경제 측면에서 필수적 요소이며, 농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에, 기존의 이주민들에 대한 원주민의 이질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주민들의 차별로 인한 고통과 이로 인해 파생된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간과는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MIPEX와 같은 공신력 있는 지수를 분석하였을 때, 해외의 다른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평가 됨으로써 이주민 문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와 국내의 농촌과 이주민 관련 연구들에 대한 계량서지학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일반적, 부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고찰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의 경우 국가 간 노동이주민 이동과 정착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고려’가, 국내는 유사한 맥락에서 ‘고용과 일자리로 인한 이동과 차별’, ‘폭력’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국내·외 연구 분석에서 국내는 ‘이민자에 대한 건강

37) 안석, 이유정, 장경희, 농촌지역 기능장에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장벽.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2019. pp.5-29.

38) 양경은, 박송이, 이주민에 대한 ‘상징적 폭력’과 차별: 이주민 밀집지역 내 중도입국 자녀 부모의 경험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1(3), 2021. pp.39-66.

39) United Nations, Violence against women migrant worker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03.

40) 김중관,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중동학회지, 34(1), 2014. pp.175-197.

문제의 소홀'과 '폭력'이라는 해외와 비교되는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국내 농촌에서의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법에서 이주민의 건강과 폭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다문화지원법 및 차별금지법에 담아야 한다. 둘째, 국내형 MIPEX 지수를 도입하고 폭력과 건강에 대한 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이주민의 포용적 사회심리기제형성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의 개선은 농촌지역에서 이주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국내외의 Science Direct와 KCI 데이터베이스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연구동향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과의 공존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으로 국내의 이민자의 건강 문제와 폭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포용적 대안으로서의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개발과 농촌 공간에서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향후 연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욱 외 4인, 한국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2010.
- 강휘원, 한국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2006.
- 김기태 외 7인,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주노동자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김미숙 외 7인, 사회통합 중장기 전략개발 연구 보고서,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2.
- 김배성, 최세현, 농촌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과 성격-농촌지역 인구구조 및 외국인 인구 변화추이 전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5(3), 2007.
- 김중관, MIPEX지수에 의한 다문화사회통합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중동학회지, 34(1), 2014.
- 김현숙, MIPEX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MIPEX 2020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4(1), 2021.
- 노대명, 이현주, 강신욱, 강은정, 전지현, 이은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 안석, 이유정, 장경희, 농촌지역 기능장애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장벽,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2019.
- 양경은, 박송이, 이주민에 대한 '상징적 폭력'과 차별: 이주민 밀집지역 내 중도입국 자녀 부모의 경험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11(3), 2021.
- 이유빈, 이영호, 성정창, 애나, 지상훈, 황철수, 계량적 모델을 통한 지리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토픽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6), 2020. pp 589-599.
- 이은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법과사회, (69), 2022.
- 장신재, 다문화 수용태도 결정요인: 2018년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2(2), 2020.
- 전경옥,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구, 46(1), 2007.
- 정동제,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 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9.
- 최연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6(3), 2009.
- Börsch-Supan, A. and Jürges, H., The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Methodology, Mannheim: Mannheim Research Institute for the Economics of Ageing (MEA), 2005.
- Brydsten, A., Rostila, M. and Dunlavy, A., Social integration and mental health-a decomposition approach to mental health inequalities between the foreign-born and native-bor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8, 2019.
- Deutsch, K.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 Foroughi, E., Misajon, R. and Cummins, R. A., The Relationships Between Migration, Social 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on Quality of Life, Behaviour Change, 18(3), 2012.
- Solano, G. and Huddleston, T.,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20, Barcelona/Brussel: CIDOB and MPG, 2020.
- Johnson, C. M. et al.,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xplaining mental health inequalities between immigrants and Swedish-born: A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17(1), 2017.
- Karl, A., Wisnowski, J. and Rushing, W. H., A Practical Guide to Text Mining with Topic Extractio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7(5), 2015.
- Knight, J. and Gunatilaka, R., Great Expectations?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ural-Urban Migrants in China, World Dev., 38, 2010.
- Laurentsyeva, N. and Venturini, A.,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Role of Policy-A Literature Review, Intereconomics, 52(5), 2017.
- Lecerof, S. S., Stafström, M., Westerling, R., et al., Östergren. Does social capital protect mental health among migrants in Sweden?, Health Promot Int., 31(3), 2015.
- Lucas, C., et al.,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for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Analysis, 23(2), 2015.
- Nauck, B., Intercultural Contact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2), 2001.
- Penninx, R., Problems of and solutions for the study of immigrant integration,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7(13), 2019.
- Pollard, T. and Howard, N., Mental healthcare for asylum-seekers and refugees residing in the United Kingdom: A scoping review of policies, barriers, and enab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15, 2021.
- Ruth, D., Immigration and Depression in Canada: Is there really a Healthy Immigrant Effect? What is the Pattern of Depression by Time since Immigration? University of Calgary, Calgary: Canada, 2017.
- Straiton, M., Grant, J. F., Winefield, H. R. and Taylor, A., Mental health in immigrant men and women in Australia: The North West Adelaide Health Study, BMC Public Health, 14, 2014.
- Sun, J., Lyu, S. and Dai, Z., The impa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lifestyle on health status of residents: Evidence from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data, Int. J. Health Plan. Manag., 34, 2019.
- Szaflarski, M., Cubbins, L. A., Bauldry, S., Meganathan, K., Klepinger, D. H. and Somoza, E.,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Dysthymia at the Intersection of Nativity and 90 Racial-Ethnic Origins.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8(4), 2016.
- United Nations, Violence against women migrant worker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2003.
- Zimmerman, C., Kiss, L. and Hossain, M., Migration and Health: A Framework for 21st Century Policy-Making, PLoS Medicine, 8(5), e1001034, 2011.

37. 행정안전부, [www.mois.go.kr](http://www.mois.go.kr), [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3](http://www.mois.go.kr/fi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3)
38. 유럽연합 이사회, <https://ec.europa.eu>
39. MIPEX 포털, [www.mipex.eu](http://www.mipex.eu)
40. UN DESA, <https://www.un.org/en/desa>

접 수 일 자 : 2023. 01. 11  
초 심 완 료 일 자 : 2023. 02. 02  
재심(1차)완료일자 : 2023. 02. 20  
계 재 확 정 일 자 : 2023. 02. 21